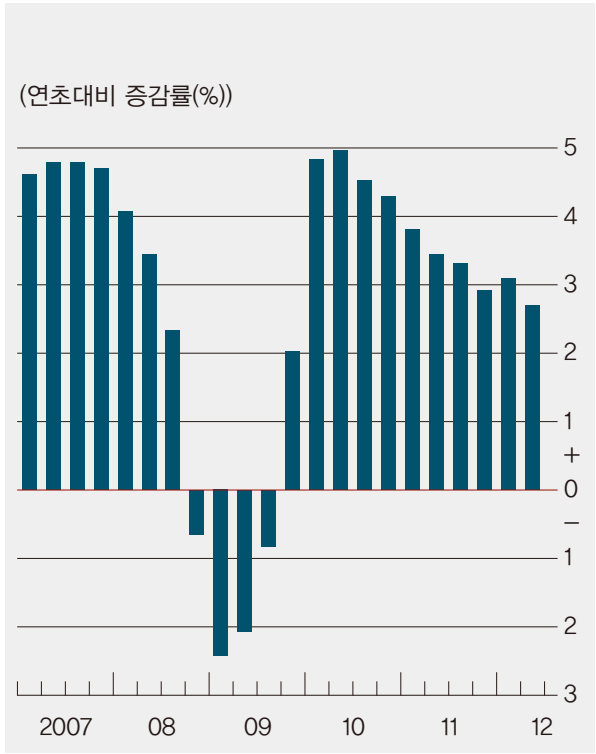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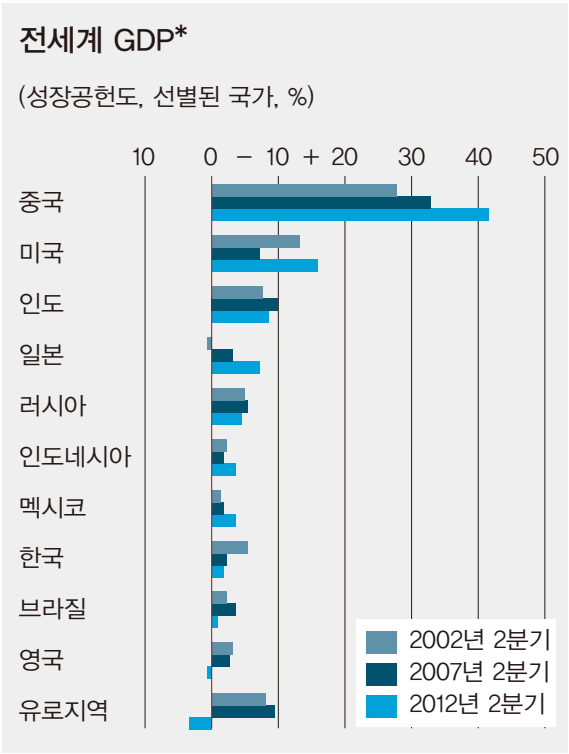


# Weekly Indicator

## 전세계 GDP 전망치

Economist의 52개국 대상 글로벌 GDP 추정치에 따르면, 2012년 2분기 글로벌 경제는 유로존 위기와 미국 및 중국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2009년말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. 1990년에 미국은 세계 GDP에서 4분의 1을 중국은 세계 GDP에서 불과 4%를 차지하고 있었으나, 현재 미국의 전세계 GDP 비중은 5분의 1보다 적은 반면, 중국의 전세계 GDP 비중은 15%까지 증가됨. 2005년 이후(글로벌 침체기간 제외) 2012년 4분기까지 미국은 여전히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. 이와 같은 경제적 무게변동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중치에 반영되고 있음



\* 전세계 GDP의 90%를 차지하는 52개국 기초로 추정하였고, 구매력평가설(purchasing-power parity)로 GDP를 가중  
 자료출처: Haver Analytics; IMF; The Economist, The Economist(2012.10.09)에서 재인용